



8.23일

신문 읽기

기사 원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96361

코로나19 우리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봅시다.

석간 **내일신문**

2021년 08월 19일
17면 (정책)

다시 2천명대 ... 거리두기 4주 연장 가능성

내일 거리두기단계 조정

19시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00명대로 조사됐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의 재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추석 직전까지 4주 연장도 가능하다는 언급이 나온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9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14명으로 나타났다. 4차 대유행이 지속하면서 40일 넘게 하루 1000명을 크게 웃도는 네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여름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이동량 증가에 따른 추가 확산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기존 바이리스크보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 단시간 내에 지금의 유행 확산세를 억제하기 어렵

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1주간(8월 9일~15일) 주민 이동량이 1억1738만건으로, 그 전 주(8월 2일~8일) 1억1271만건에 비해 4.1%(467만건) 늘었다. 또 지역 간 이동과 여행이 늘면서 지난 1주간 고속도로 이동량은 3401만건으로, 그 전 주(3316만건)에 비해 2.6% 증가했다.

방역당국은 환자 발생 추이와 백신 접종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사적 모임 제한 조치를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관련 전문가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생방위)의 18일 밤 회의에서도 재연장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지금의 거리두기를 2주 또는 최장 4주 재연장하되 백신 접종자에 대

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다소 '숨통'을 틔워 주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확산세로 볼 때 현행 거리두기 및 5인·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재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동안 2주 단위로 단계를 연장해왔는데 이번에는 추석 연휴가 있어 그전까지 연장한다면 4주가 될 가능성도 언급됐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아직 접종 일정을 예약하지 못한 18~35세(1986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출생자)는 20일 오후 8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예약할 수 있다.

21일 오후 8시부터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는 18~49세 대상자 전체가 다시 예약 기회를 얻는다.

김규철 기자 gckim1005@naeil.com



신문 읽기 활동

장애올림픽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기사 원문: <https://www.hani.co.kr/arti/sports/sportstemp/1008091.html>

중앙일보

2021년 08월 19일
29면 (오피니언)

분수대

패럴림픽

1960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최초의 패럴림픽이 열렸다. 지금처럼 올림픽 개최 도시에서 올림픽 시설을 활용해 패럴림픽을 여는 전통은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시작됐다. 바르셀로나(92년)와 애틀랜타(96년)가 올림픽 후 패럴림픽을 개최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는 2001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앞으로도 계속 한 도시에서 연이어 열기로 합의했다.

한국 선수단은 1968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개최된 제3회 패럴림픽에 처음으로 참가했다. 1972년 하이델베르크 패럴림픽에선 남자 휠체어 탁구 단식의 송신남 선수가 첫 금메달을 따냈다. 한국의 패럴림픽 역대 최고 성적은 88년 서울패럴림픽에서 거둔 7위다. 당시 한국은 금메달 40개, 은메달 35개, 동메달

은 19개나 따냈다. 이때부터 한국은 패럴림픽에서도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성과에도 패럴림픽은 올림픽에 비해 큰 주목을 받지 못한다. 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포상금이나 연금 같은 혜택이 동일해진 것은 2008년 베이징 대회에 와서였다. 방송사들은 올림픽 중계에는 경쟁적으로 달려들지만, 패럴림픽 중계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올림픽에서는 영웅이 탄생하고 패럴림픽에는 영웅이 출전한다’는 말은 허울뿐이었다. 청각 영웅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

24일 개막하는 패럴림픽의 한국 기수는 누구일까. 보치아라는 종목의 최예진(30) 선수라고 한다. 보치아는 가로 6m, 세로 12.5m 경기장에서 각각 6개의 빨간색과 파란색 볼을 갖고 표적구(흰

색)에 가까이 던지는 경기다. 뇌성마비 등 중증장애인이 출전한다. 올림픽에 양궁이 있다면 패럴림픽엔 보치아가 있다. 한국은 서울 대회부터 지난 2016년 리우 대회까지 8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한 보치아 절대 강국이다.

한국은 14개 종목에 선수 86명, 임원 73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59명을 파견한다. 금메달 4개, 은메달 9개 동메달 21개 등 종합 20위권이 목표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대회 기간 도쿄 패럴림픽 온라인 코라인하우스 홈페이지(<https://2020tokyo.koreanpc.kr>)를 운영한다. 실시간 중계와 경기 결과를 제공한다. 패럴림픽 성화가 뜨겁게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장애를 극복한 영웅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시간이다.

장주영 내셔널팀 기자



9.6일

신문 읽기

기사를 읽고 난 후 느낌을 이야기해봅시다.

기사 원문: <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108160300065>

경향신문

2021년 08월 16일
21면 (오피니언)

기고

판결과 승복



곽경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석연찮은 판결으로 패해도 문제삼지 않는 게 미덕인 시절이 있었다. 선수는 그럴다 쳐도 문제는 판이었다. 돈과 시간을 들여 오심을 소 비할 사람은 없었다. 오심시비가 잦은 종 목은 외면됐다. 그래서 판정에 이의를 제 기하는 비디오판독이 시작됐다. 처음에 는 도입하는 종목마다 심판 권위 훼손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 판정을 문제 삼는 것은 스포츠정신에 어긋날까.

사실에 관한 주장이 차열하게 맞서는 곳이 법정이다. 판독할 비디오라도 있는 스포츠는 그나마 형편이 낫다. 사건 현장

에 있던 것도 아닌데 사실을 인정해야 하 는 책임을 안은 법관만큼 난감한 사람도 없다. 제출된 증거와 유죄인정 법리로만 사실을 장해야 한다. 법관이 인정한 사실 에 기초해, 벌금을 내고 징역을 살아야 한 다. 법관은 법정의 당사자들인 검사·피고 인보다 기능과 역할에서 중립적이고 객 관적이다. 혼란되고 단련된 판단자다.

법관의 사실인정에도 한계가 있다. 법 관이 잘못하지 않아도 생긴다. 화성 8차 사건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회유와 협박 을 받아 허위자백을 하고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체포 감청 오후까지 더해져 유죄 를 받고 20년을 감옥에서 살았다. 법관이 어렵게 내린 사실인정이 사람들을 설득 하지 못하기도 한다. 갑보다야 만사 아내 살인사건처럼 무죄 판결에 의문을 품기 도 하고, 반대로 금당집 수행사건처럼 유 죄가 문제 되기도 한다. 법에 따라 확정 판결은 취소될 수 없는 확정력, 판결이 명

한 의무를 강제로 실현하는 집행력이 있 다. 그렇지만 설득력만은 판결이라는 이 유로 생기지 않는다. 설득은 타당한 논증 을 통해 달성되는 것일 뿐, 누군가에게 강 요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요즘은 동료 판사나 상급심 판결을 시 비하는 판사가 적지 않다. 법원 내부 게시 판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판결을 비 관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하지만 몇 해 전만 해도 법관의 판결 비판은 금기였다. 심지어 판결을 비판했다가 징계받은 판 사도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그의 지적이 타당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 판사가 문 제 삼았던 판결은 뒤집어졌다. 이제는 판 결을 비판한다고 징계하지 않는다.

재판은 인생이 달린 일이다. 비교적 가 벼운 사회봉사명령이라도, 주중에 이행 하다가 직장을 잃고 생계를 위협당했다, 생사가 오가는 재판에 스포츠 경기 같은 재미는 없다. 오판도 인생의 일부라고 말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재판은 승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중차대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받는다. 불행은 설득되 지 않을 때 생긴다. 국가는 힘의 독점체지 만, 문명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힘 의 이유를 밝힐 의무가 있다.

얼마 전 항소심 판결에 대해 450쪽이 넘는 상고이유를 제출하고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는 한 줄짜리 결 론만 받아온 피고인이 있었다. 그런데 그 가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비난하는 사람들이 인용한 것은 항소심 판결이다. 이처럼 많은 대법원 판결이 별다른 이유 를 적지 않는다. 재판에 익숙치 않은 피고 인은 법원 판결이 비판을 불가능하게 만 들기도 한다는 사실은 몰랐을 것이다. 스 포츠에서 판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심판 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에는 경기를 완성한다. 사람을 살리는 것 도 승복이 아니라 비판과 설득이다.



신문 읽기

9.13일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 봅시다.

기사원문 : <https://news.join.com/article/24130992>

중앙일보

2021년 08월 19일
27면 (오피니언)

e글중심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던 공무원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보건소 공무원 휴직 및 사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직하거나 휴직한 인원이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했습니다. 현장에선 열악한 처우에 대한 불만이 나옵니다. 현장 공무원은 ‘감염 고위험군’에 속하지만, 백신 우선 접종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상한으로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한 공무원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재난 발생으로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상한 시간을 적용받지 않지만, 지켜지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선별검사를 지원하고 확진자에 대한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배정, 방역, 사후 관리 등도 보건소 공무원들이 담당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방역 일선을 지키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방역 공무원들이 보건소 떠나는 까닭 “고생한 만큼 대우를”

“그만두는 마음, 이해돼요”

“1년하고도 반이나 더 지났는데 아직도 현장 공무원들 근무환경이 이렇게 열악한 게 말이 되나? 정부는 그동안 뭐한 거야?”

“코로나 방역 최일선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분들 덕에 이 정도라도 유지하는 걸 텐데, 대우가 저래도 되는 건가?”

“나라도 그만두겠다. 일은 많이 시키고, 보상은 제대로 안 해주고, 누가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겠냐?”

“오죽하면 그만둘까. 방역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부터 해결했어야지.”

“열악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해야”

“열악한 환경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께 마땅한 처우를 해주세요.”

“울여름처럼 더운 날에도 묵묵히 방호복 입고 일하신 분들에게 더 좋은 대우 부탁드립니다. 이러다가 다들 지쳐서 그만두실까 걱정됩니다.”

“일한 만큼의 보상을 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니, 정부는 아서 빨리 관련 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하길 바랍니다.”

“의료 현장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관련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e글중심지가=이지우 인터넷기자



e글중심(樂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com)에서 만나보세요.

